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애플이 되살린 빅테크 열풍..주가 추가 랠리 가능할까?
 - ◇ (초점)-차액결제 담보 고유동성 자산 인정 '초읽기'..LCR 정상화 효과 상쇄될까?
 - ◇ (초점)-달러/원 1200 원의 의미,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 ◇ (초점)-쉽지 않은 달러/원 고정 찾기..역대급 IPO 등 수급 셈법 복잡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도시인 알마티의 한 광장에서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로이터/마리야 고르데예바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01.5	-1.1%	-1.1%	-8.6%	유로	1.1361	-0.1%	-0.1%	-6.9%
100엔 대비	1,036.4	-0.3%	-0.3%	+1.8%	엔	115.57	-0.4%	-0.4%	-10.3%
유로 대비	1,360.7	-0.7%	-0.7%	-1.9%	위안	6.3770	-0.3%	-0.3%	+2.7%
위안 대비	187.79	-0.4%	-0.4%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6,231.66	-0.3%	-0.3%	+18.7%
코스피	2,954.89	-0.8%	-0.8%	+3.6%	나스닥	14,935.90	-4.5%	-4.5%	+21.4%
코스닥	995.16	-3.8%	-3.8%	+6.8%	S&P500	4,677.03	-1.9%	-1.9%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625.81	-0.6%	-0.6%	-4.9%
국고채 3Y	2.015%	21.7bp	21.7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255%	24.4bp	24.4bp	+67.6bp	미국채 2Y	0.870%	14.0bp	14.0bp	+61.0bp
국고채 10Y	2.458%	20.8bp	20.8bp	+53.7bp	미국채 10Y	1.760%	25.0bp	25.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78.94	4.6%	4.6%	+55.8%	한국 5Y	23.7bp	1.6bp	1.6bp	-0.7bp
금(현물)	1,796.16	-1.8%	-1.8%	-3.6%	일본 5Y	17.5bp	-0.1bp	-0.1bp	+2.1bp
TR상품지수	3,304.52	-1.0%	-1.0%	+24.6%	중국 5Y	43.6bp	2.4bp	2.4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월 10일(월)>

- 금감원, 2021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산업부,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1:00)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5:00)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실시 (15:00)

<11일(화)>

- 한은, 2021년 11월 국제수지(잠정)(08:00)

<12일(수)>

- 기재부, 부총리 관계장관회의(07:30)
- 통계청,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8:00)
- 한은, 2021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12:00)

<13일(목)>

- 한은, 2021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발간 (10:00)
- 금융위, 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10:00)
- 한은, 2021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한은, 2021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금감원, 2021.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산업부, 장관 수출 및 공급망점검 회의(대한상의)(14:00)

<14일(금)>

- 기재부, 1월 최근 경제동향(10:00)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9: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월 10일(월)>

- 유로존 1월 섉틱스지수 (18:30)
- 유로존 11월 실업률 (19:00)
- 미국 12월 고용추이 (자정)
- 미국 11월 도매판매·도매재고 수정치 (자정)
- 일본 휴장

<11일(화)>

- 일본 12월 외환보유고 (08:50)
- 일본 11월 경기동행·섉행지수 (14:00)
- 미국 1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미국 주간모기지마켓지수 (21:00)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연임 인준 청문회 출석 (자정)

<12일(수)>

- 일본 1월 로이터단칸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08:00)
- 일본 12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11월 경상수지 (08:50)
- 중국 12월 CPI·PPI (10:30)
- 유로존 11월 산업생산 (19:00)
- 미국 12월 CPI (22:30)

<13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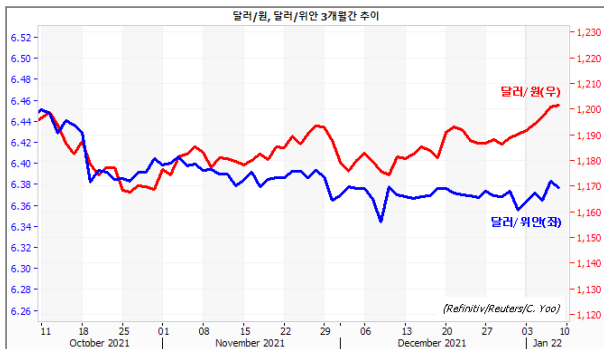
- 미국 12월 연방예산 (04: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2월 PPI 최종수요 (22:30)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경기전망 서베이 발표 (22:30)
- 라엘 브라이너드 연준 부의장 후보,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 출석 (자정)

<14일(금)>

- 일본 12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중국 12월 수출입
- 미국 12월 수출입 물가·소매판매 (22:30)
- 미국 12월 산업생산 (23:15)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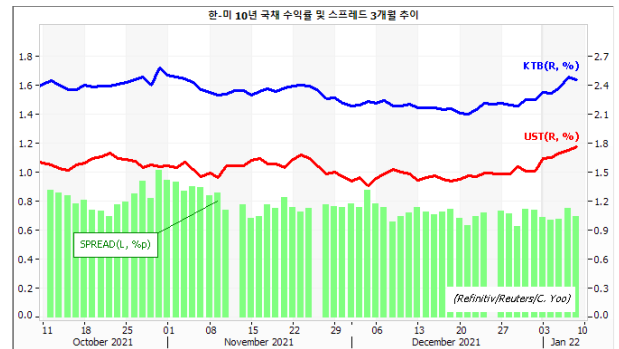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새해 들어 상승 일변도 흐름을 보인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90-1207 원이다.
- 연초 전망대로 새해 첫 주인 지난주 달러/원은 1200 원대로 고점을 높였다.
- 하지만 네고 매출도 집중됨에 따라 달러/원의 일간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 수급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인준 청문회와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 결과는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다.
- 최근 긴축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내고 있는 연준 행보 속에서 연준 의장 발언과 미국 소비자물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할 재료다.
- 주 후반에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통위 정책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재 1%에서 1.25%로 25bp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은 선반영된 재료로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한 향후 스탠스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 역대급 기업공개(IPO)로 꼽히는 LG 에너지솔루션 주식 공모에 대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12일 마무리되고 공모가가 14일 확정되는데, 이와 관련한 수급 관심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연초부터 시장 변동성이 폭발하고 있다.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매수 포지션을 쌓았던 하우스들이 포지션을 털었고 그 결과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1월 금통위 회의를 맞게 됐다. 3월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새로운 총재 부임 전 기준금리를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올려 놓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다수의 금통위원도 이 총재의 드라이브에 동조하고 있다.
- 코로나 19 상황도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중요한 변수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면서 금통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주일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등 향후 또 한 번의 유행 국면이 닥칠 가능성은 있다.
- 금통위 입장에서선 최대한 빨리 속제를 마치고 싶어 하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시장의 관심은 결국 이 총재의 메시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 물리적으로 당분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총재가 이제는 지켜보자는 발언을 내놓을지, 최근의 시장금리 급등세가 과도해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 미국 국채금리 흐름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일(현지시간)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인준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다. 최근 조기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건이다.

(분석)-애플이 되살린 빅테크 열풍..주가 추가 랠리 가능할까?

뉴욕, 1월 06일 (로이터) - 지난 3일(현지시간) 애플이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3조달러를 넘어선 뒤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되살아났고, 이들의 비중이 높은 S&P500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지도 주목받고 있다.

UBS 글로벌자산관리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등 5개 대형 기술주는 S&P500 지수 작년 수익률 28.7%의 거의 1/3을 차지했다.

지난 10년 동안 대형 기술주들은 S&P500 지수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대형 기술주들의 성장이 계속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디니 리서치에 따르면 S&P500 지수의 예상 이익 대비 가격 배율은 27.9 배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체 시장의 21.3 배보다도 높다.

개별 주식으로 보면 엔비디아 주가는 예상 이익의 56 배이며, 테슬라 주가는 무려 119 배이다.

사이라 말리크 누빈 수석 투자자는 올해 수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은 해당 주식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기술주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그런 요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렌 웰스파고투자연구소 선임 전략가는 오미크론 변이 우려가 완화된 것도 기술주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기술주들은 작년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외출제한 조치에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UBS는 4일 서면에서 대형 기술주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UBS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더 이상 대형 기술주가 기술 업종에서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이버안보 등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잭 자나시에웁즈 나타식스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경제가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대형 기술주가 단지 기술 업종이기 때문에 투자했던 변동성이 심한 사이클의 정점은 지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초점)-차액결제 담보 고유동성 자산 인정 '초읽기'..LCR 정상화 효과 상쇄될까?

서울, 1월 6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차액 결제 담보증권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의 확정 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차액 결제 담보증권 비율의 정상화를 앞둔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압박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은행권에선 차액 결제 담보증권이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면 1분기 은행의 자금 사정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향후 행보 등 불확실성이 커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 2월부터 인정될 듯

금융감독원과 한은, 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현재 50% 수준인 차액 결제 담보증권 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됨과 동시에 차액 결제 담보증권이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미 차액 결제 담보증권 비율의 인상을 은행에 통보했고 금감원 역시 차액 결제 담보증권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의 확정을 앞두고 있다.

한은은 당초 지난해 8월 1 일을 기점으로 차액 결제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은행권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이후 한은과 금감원은 LCR 정상화, 차액 결제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 등에 따른 은행권의 고유동성 자산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액 결제 담보증권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 협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고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달 1일부터 차액 결제 담보증권의 제공 비율이 인상되는 만큼 금감원 역시 2월부터 규정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일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액 결제 담보증권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이 2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정권자의 사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압박

한은은 70% 수준이던 차액 결제 담보 증권 제공 비율을 지난 2020년 4월 10일부터 50%로 전격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코로나 19 사태 직후 나타난 시중 자금경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차액 결제 담보는 은행 간 결제가 이연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은행별로 납입하게 한 것이다. 차액 결제 담보증권의 납입 비율이 인상되는 만큼 은행들은 한은이 정한 적격채권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순채무 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의 가용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차액 결제 담보 비율 인상은 3월로 예정된 LCR 규제 완화 조치의 만료와 함께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압박하는 부분이다. 당초 지난해 3월로 예정했던

LCR 규제 완화 만료 시기를 두 차례나 추가 유예하며 올해 3월로 미룬 금융당국이 현재 85%인 LCR 비율을 4월부터 최소 90%까지는 올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금융당국이 LCR을 한 번에 100%까지 올리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그동안 은행업계에 여러 차례 피력해 왔던 만큼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시장에선 5%P의 비율 조정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은행의 LCR은 93.9%로 2020년 대비 1.2%P 하락했다. 당시 한은은 "일부 은행의 LCR이 완화된 규제기준인 85%에 근접해 있어 2022년 초 LCR 규제 완화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은행에 '단비' 되나

다만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이 LCR 비율을 4월에 5%P만 올린다면 차액 결제 담보증권의 고유동성 자산 인정에 따른 효과로 유동성 감액분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 은행 자금부장은 "LCR이 3월에 5%P만 오른다면 차액 결제 담보 비율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차액 결제 담보증권의 고유동성 자산 인정으로 유동성 감소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본다"며 "LCR 비율 정상화에 따른 시장 혼란은 제한적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은행마다 순현금자산 유출입, 고유동성 자산 규모가 달라 세 가지 변수가 미칠 영향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 은행 자금담당자는 "차액 결제 담보증권이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LCR 등의 정상화에 따른 유동성 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LCR 비율이 5%P만 상향 조정된다고 100% 가정하고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마다 사정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각자 내부 상황을 감안해 유동성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점)-달러/원 1200 원의 의미,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서울, 1월 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새해 당초 예상대로 글로벌 달러 강세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원 환율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1200 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섭지만, 이전 변이 확산 때와는 달리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뒷받침되면서 주요국 중 가장 긴축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적극적이다.

미국 금리 선물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월까지 25bp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66%로, 5월까지 100%로 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달러/엔은 5년 최고치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작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있다.

JP 모간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발생 중인 오미크론의 경우 이전 바이러스 확산 때 나타났던 공급망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분기별 성장 변동성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은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덜 치명적인 유행과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향한 진전으로 향후 코로나와 경제활동 간 연관성은 향후 다가오는 분기 내 끊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작년 10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올라 1200 원대 진입을 타진하고 있다.

▲ 1200 원대 의미

지난 10년간 달러/원이 1200 원대로 상승한 때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중국발 경제 둔화 우려에 휩싸였던 2015-2016년, 미-중 무역 갈등이 첨예했던 2019년, 그리고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이다.

이렇다 보니 1200 원대는 대내외 리스크가 점증될 때 진입하는 구간으로 1200 원을 앞두고는 어김없이 긴장감이 커진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원화 움직임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 외환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해외 증권 및 직접투자 확대 추세가 공고해진 탓에 과거처럼 역대 풍부한 달러 때문에 원화가 자연스럽게 강세 압력을 받는 양상은 제한됐다.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던 해외 주식 투자는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개인들의 투자가 몰리며 급증했고, 제조업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규투자 진행 등에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 역대 달러 사정이 과거보다 뻑뻑해졌다.

이런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 여기에다 경기 회복 사이클에 따른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급증 등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됐고, 그 결과 작년 12월에는 이례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했다. 2021년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9년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전반적인 펀더멘털에 딱히 이상 징후가 없고 대외 순자산이 확대되는 국면 아래 원화가 대외 여건과 맞물려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데 대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꾸준히 적응력을 높여 왔다.

다시 말해 달러/원 1200 원대가 과거처럼 금융시장 내 긴장감이 극도로 커질 때만 진입하는 레벨이 아니라는 인식을 키워왔다. 시장 수급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과거보다 환율 거래 범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반영돼 왔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1200 원대는 '가면 가는' 레벨이다. 과거처럼 롱 베팅이 몰려서 환율이 올라가고 1200 원대가 뚫릴 경우 이후 더 힘을 받아 환율 상승세가 계속 커질 것이라는 기대는 과거만큼 크지 않다"면서 "레벨만을 보고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가 별다른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 변동성을 키우는 국면이 전개되는 데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있다.

B 은행 외환 달러는 "달러 수요 측면이 달라진 데 대한 시장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200 원대로 올라 그 이후에도 상단이 쉽게 뚫린다면 외인 헤지 비율 조정 등에 환율이 갭 상승 형태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초점)-쉽지 않은 달러/원 고점 찾기..역대급 IPO 등 수급 썸범 복잡

서울, 1 월 07 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새해 첫 주 달러/원 환율이 '빅 피겨'를 1200 원대로 비교적 쉽게 갈아치울 정도로 상승세가 매섭다.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의 전 세계 확산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과 조기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자 원화 약세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달러/원은 7 일 1204.2 원에 개장해 2020 년 7 월 20 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가 작년 3 월 이후 최고로 치솟는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아래 모델펀드를 필두로 한 역외 매수세가 환율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달러/원은 새해 들어 연일 전진하고 있다.

두터운 강 달러 전망에 달러/원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수급 변수를 고려하면 외환 시장 참가자들의 썸범은 단순할 수만은 없다.

▲ LG 에너지솔루션의 역대급 IPO..리얼머니 수급 촉각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LG 에너지솔루션 IPO 에 대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관심도 크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의 전체 공모 주식 수는 4250 만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최저 25 만 7 천원에서 최고 30 만원이다. 희망 공모가 기준 공모 규모는 최소 10 조 9225 억원에서 최대 12 조 7500 억원으로 2010 년 삼성생명 IPO 규모에 비해 2~3 배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다.

일정상으로는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3 일부터 12 일, 국내 기관투자자는 11 일과 12 일 수요 예측 뒤 14 일 공모가가 확정된다.

우리사주를 제외한 3400 만주 중 일반 청약자에게 25% 이상 배정하고 나머지 75% 상당을 기관이 가져가는데,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 수는 2337 만 5 천주로 희망 공모가를 통해 산출한 공모 총액은 6-7 조원대가 예상된다.

해외 기관 배정 비중이 관건이지만 이번 IPO 에서 외국계 증권사 인수 물량이 2210 만주로 상당히 높고, 해외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감안하면 외환 시장 수급 변수로서 충분하다는 평가다.

기관 투자자의 청약일은 18-19 일이고, 납입일은 21 일이다. 다만 기관 투자자는 이번 공모에 청약증거금은 면제된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면 17 일 주부터 외환시장은 IPO 이벤트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27 일) 이후 주요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상장 이후 관련 수급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쌀이는 롱 포지션..커지는 수급 경계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시사와 이에 따른 강 달러 전망 강화에 달러/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크다. 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활발한 롱 베팅에 장중 환율이 잠시 밀릴 때마다 두터운 달러 매수세가 채워지는 양상이다.

한 은행 외환 달러는 "현재로서는 매크로상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때는 아니다. 수급 벽이 있지만 아직은 환율이 빠지면 담으려는 유인이 더 크다.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2 조원을 웃도는 국내 조선사 수주에 더해 LG 에너지솔루션 IPO 에 따른 대규모 달러 공급까지 감안하면 원화의 일방적인 약세를 단정짓기도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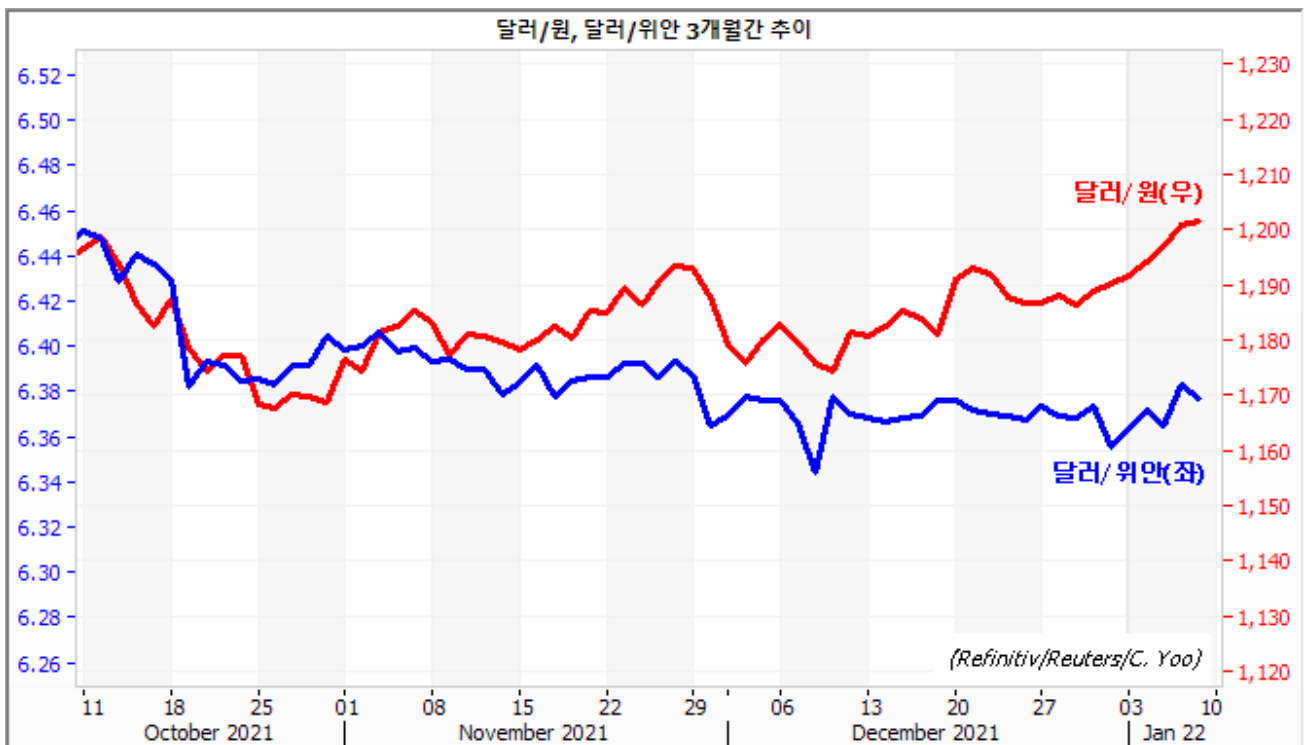
다른 은행 외환 달러는 "최근 수주도 그렇고 대규모 외인 물량이 예상되는 LG 에너지솔루션 이벤트를

감안하면 환율은 지금보다 무거워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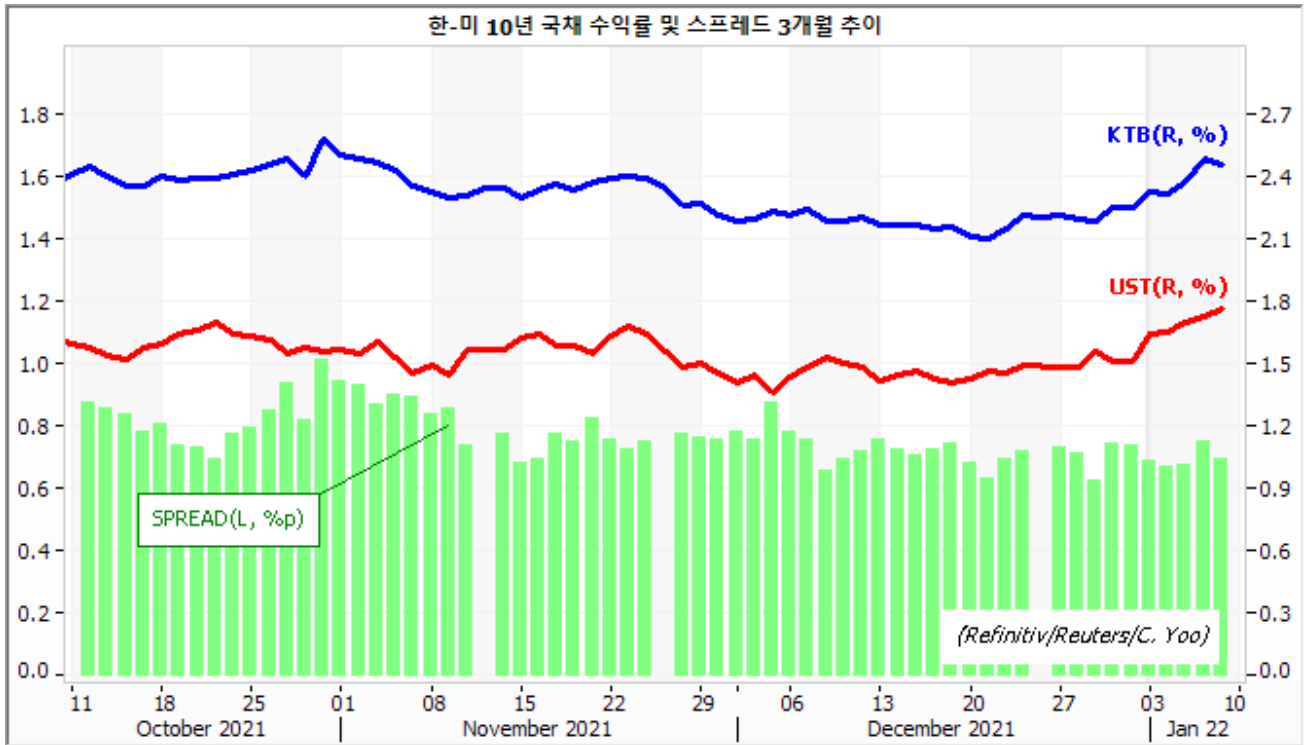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